

경축년 기념 식사: 피정의 날



케냐의 쇼키마우 공동체 수녀들은 독일 코스펠드 수녀들이 공유하는 유럽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하기로 한 날 전날 밤, 수녀들은 소식지를 살펴보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두 즐거워했고 열의가 넘쳤습니다. 다같이 성녀 베로니카 가톨릭 본당에서 첫 미사에 참석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은 코스펠드 수녀들의 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정은 "신뢰는 우리의 유산"이라는 주제와의 멋진 만남이었고, 그날 우리의 성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 ✓ A= Adoration(경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을 인식하고 경배하기
- ✓ C= Contrition(통회): 나의 약점과 죄를 뉘우치기
- ✓ T= Thanksgiving(감사):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 ✓ S= Supplication(탄원): 하느님의 힘과 인도를 간청하고 충만함을 느끼기
- ❖ 아브라함과 모세같은 성경 속 신앙의 모범에 대한 하느님의 충실성을 성경에서 찾아 묵상하기
- ❖ 하느님의 뜻에 맡기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방법이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했던 성녀 줄리처럼 하느님의 손에 맡긴다.
- ❖ 확신을 세우는 것은 시련을 성장을 위한 기회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련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이다.

마치면서, 수녀들은 숙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 ✓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개인적 도전들은 무엇인가?
- ✓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 어떻게 하느님께 대한 확신과 그분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월피정의 날은 고해 성사와 미사로 끝이 났습니다.

메리 테오피스타 수녀, SND